



최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2014 동아시아문화도시' 한·중·일 예술제에 참가한 광주대표 국악단 '울'이 국악합주곡인 수제천을 연주하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 르네상스 '예향' 광주가 이끈다

中 취안저우시·日 요코하마시 등과 대표 문화도시 선정

3국 문화장관회의·우호도시협정 체결 등 지속 교류 기대

광주시가 '2014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중국 취안저우시, 일본 요코하마시의 수준 높은 문화교류사업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크게 강화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한·중·일 3국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2014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와 취안저우시, 요코하마시는 지난 3월 광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9월까지 한·중·일 예술제, 청소년문화교류, ACE Fair 등 수준 높은 연중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10~11월 두 달간 7080 추억의 총장 축제, 광주-취안저우 민간관광교류, 3개 도시 폐회행사 등 크고 작은 문화교류 행사를 주도하면서 광주의 문화적 역량을 아시아권에 확산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특히 광주시는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지난달 18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문화도시시장 회의에서 취안저우시, 요코하마시 등과 향후 문화예술 분야에서 상생 발전하는 내용을 담은 우호협력도시협정을 맺는 성과도 냈다.

광주시는 올 한해 다양한 동아시아문화도시 행

사를 통해 국제문화도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취안저우시와 요코하마시 개막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살린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현지 언론 등으로부터 호평받았으며, 지난 3월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광주 개막 행사에서는 '동아시아문화의 빛-광주'를 주제로 품격있는 무용·합창 공연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문화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특히 지난 10월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광주의 꿈'을 주제로 한 '꿈의 향연' 공연은 개막식에 이어 모든 좌석이 매진됐으며, 해당 공연을 감명깊게 관람한 중국 취안저우시 관계자의 초청으로 지난 11월 중국 현지공연도 했다.

지난달 3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한·중·

일 문화장관회의에서 3국 문화장관들은 이 같은 광주시의 취안저우시, 요코하마시 간 문화교류 행사의 성과를 극찬하고, 2015년에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청주시(한국), 칭다오시(중국), 니카타시(일본) 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정동채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장은 "지난 1년간 이어진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를 통해 광주의 문화적 위상을 중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시아문화도시시는 지난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3국 간 문화 다양성 존중과 교류, 융합을 위해 합의한 사업으로, 올해 첫 문화 대표 도시로 광주와 취안저우, 요코하마가 선정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공무원 이웃사랑 앞장

빛고을사랑기금 1000여명 참여

생계·월동난방비 등 250명 지원

광주시 공무원들이 자출 모금한 '빛고을사랑기금'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250명에게 월동난방비와 생계비, 장애인 구호용품 등을 지원했다.

올해 빛고을사랑기금은 총 3000만원이 모금됐으며, 이 중 취약계층 100가구에 월동난방비로 각 10만원씩, 중증장애인 100가구에 구호용품 구입비 10만원씩,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장 50명에게 각 20만원씩을 지원했다.

빛고을사랑기금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에 따라 시 산하 공무원 1000여 명이 자발적으로 희망구좌(1구좌 5000원) 자동이체를 신청해 매일 정기적 참여로 마련한 기금이다. 기부금 중 50%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일반 성금으로 제공되고, 50%는 시 자체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의료 대상자 25명에게 초과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50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총 445명에게 4800만원 상당의 겨울 용품을 지원했다.

홍남진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빛고을사랑기금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의 추운 겨울나기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폐렴구균 예방접종하세요"

광주시는 9일 "겨울철 노년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폐렴 등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지난해 5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보건소에서나 접종받을 수 있다.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달리 평생 1회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있으며,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자치구별 보건소 예방접종은 동구(062-608-3332), 서구(062-350-4157), 남구(062-650-4331), 북구(062-410-8994), 광산구(062-960-8758)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환자가 기침할 때 튀는 분비물(비말)로 전파되고, 11월부터 4월 사이에 자주 발생한다. 특히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노년층의 합병증 사망률은 20~60% 수준으로 매우 높다.

임형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꼭 접종을 받아야 하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주치의와 접종백신 종류 등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청년들의 꿈 키워주는 '광주청년센터' 설립 추진... 연구실·창업코너 등 갖춰

남구 사동 문예교육지원센터 내

청춘극장·청년공방도 개설키로

광주지역 청년들의 문화와 창의활동, 사랑방 역할을 할 가정 광주청년센터가 들어선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 사동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3억원을 들여 토론실과 연구실,

창업코너, 휴식카페, 책장 등을 갖춘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옛 질병관리본부에 마련한 청년 일자리 허브와 비슷한 역할과 기능이 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청년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우선 청년센터 공간 구성 계획으로 협업이 가능한 개방형 사무실과 동아리방 등을 배치하고,

문화와 놀이공간도 만들 방침이다.

공연과 행사 운영을 위한 이른바 청춘극장과 지역 청년 공예가들이 입주해 공방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 공방도 개설할 계획이다.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과 작은 상영관, 전당대, 야외 테라스도 갖춘다.

청년들의 지식과 지혜 공간으로 책방도 두고,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소 운영, 개별 공

부방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연말까지 세부적인 공간배치와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초에 전문 위탁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문화와 창의공간은 물론 대화와 토론의 장, 휴식공간을 갖춘 말 그대로 '청년 사랑방'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1호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가격	국내산돼지갈비2+2(700g)	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갈비2+2(48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기본4인분	4+4 = 40,000원		

625세대만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착한 소갈수**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쪽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문의 가능한 우리 지역(광주)의 분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임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작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갈수는 불경기형 맞춤형 트렌드 손님을 꼭 잡는 반응을 얻고있습니다.